

공무원 역시 수시로 전보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判斷됩니다.

同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人力과 機構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재 副區廳長에서 區廳長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재원마련과 현안 문제해소를 위하여 좀 더 積極的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서울特別市에서는 85년 11월부터 區民會館建立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 이상 충분한 支援을 해 왔습니다.

麻浦區에서는 倉前洞 와우산 부지에 동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요 예산의 과다로 자치구 부담의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향후의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麻浦區 區民會館建立에 있어 서울特別市長은 망원동 수해피해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麻浦區民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支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決議案을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고 本委員이 제안한대로 우리 委員會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裕顯 金汶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決議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本決議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本會議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第3次 總務財務委員會를 산회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散會)

○出席委員

金 裕 顯	金 汶 泰	金 星 煥
沈 載 昶	俞 南 烈	李 奉 衡
曹 熙 太	蔡 雲 錫	黃 泰 植

○出席專門委員

金 建 在

(參 照)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결의(안)

발의년월일 : 1994. 7. 16.

발 의 자 : 김문태의원의 1인

○ 주 문

1.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 문제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촉구함.

2.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서울특별 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임.

○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임.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구가 건립추진중에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임.

○ 결 의 안 : 별 첨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결의(안)**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임.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구가 건립추진중에 있는바, 동사업 추진이후 10년이된 현시점까지 부지확보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행위는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음.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우리구민의 열망은 고사하고 상암동 난지도에 52만 9천여평의 쓰레기 매축장을 건설하여 8.5t 트럭 약 1천만대분의 각종 폐기물을 쏟아 부은 결과,

침출수 방지등 위생처리 시설미비로 지하수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인근 지역주민이 호흡기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우리구만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관계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이러한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임.

1.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개관하여 사용중임에도 마포구에서는 '93. 6월까지도 동회관건립 추진반을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수시로 전보되는등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촉구함.

2. 서울특별시에서는 85. 11월부터 구민회관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해왔음. 마포구에서는 창전동 와우산 부지에 동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의 과다로 자치구 부담의 재원(재정자립도 53%)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의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마포구 구민회관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임.